현대소설연구(제85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oi.org/10.20483/JKFR.2022.03.85.547

1940년대 『신시대』부터 1950년대 〈헨델박사〉까지 발명과학의 디스토피아*

최 애 순**

요약

본 논문에서는 한국 발명과학의 계보에서 비관적 전망으로 점철되었던 시기에 집중하여 발명과학이 실제가 될 때의 공포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인간이 발명한 혹은 공상한 모든 것이 '실제'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함부로 발명하거나 공상하거나 꿈꿀 수 없다. 그것이 실제가 되었을 때의 결과나 효과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발명에 대한 공상이 현실과의 거리가 좁혀진다면, 우리가 미래를 공상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힘겨워진다. 아무리 현실을 벗어나 미래를 공상하려 해도 현실의 압박이 강하게 조여오기 때문이다. 1940년대는 태평양을 둘러싼 전쟁의 기운이, 1945년 이후로는 핵폭발의 기운이, 그리고 1950년 이후는 한국전쟁의 기운이 모든 현실을 압도한다. 아무리 미래를 공상하려고 해도 현실이 암울하고 절망적이어서 웰스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이동하는 동안 계속해서 '섬뜩한 황량함'을 마주하는 것과 흡사하다.

본 논문에서는 1940년대 태평양 전쟁기에 간행된 『신시대』에 실린 미래전쟁소설(가상소설) 「태평양의 독수리」와 과학소설 「소신술」을 통해 미래를 공상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린 현실의 실제적 공포와 발명과학이 낳은 디스토피아적 전망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1940년대는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되기 전까지 인류 대재앙의 공포보다는 경계를 두고 편을 갈라 내 편이 이기기를 욕망한다. 그러나 핵실험과 핵폭발로 세계 전역에 '지구 종말'의 기운이 짙게 드리우고, 1950년 한국전쟁을 치르는 한반도 역시 여기서 벗어날 수 없었다. 1952년 전쟁기에 껌딱지 만화로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A2A01061213)

** 계명대학교 타불라라사 칼리지 조교수

발간된 〈헨델박사〉는 '지구의 마지막 남은 인간'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1959년 한낙원의 『잃어버린 소년』이나 김산호의 공상과학 만화 〈라이파이〉에서 디스토피아적 전망은 낙관적인 기대로 바뀌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낙관적 전망으로 바뀌기 전 디스토피아적 전망을 드러내며 미래를 공상할 여유가 없이 현실의 공포가 잠식했던 시기를 따라가 보고자 한다. 「태평양의 독수리」를 제외하고 「소신술」과 〈헨델박사〉는 연구된 바가 없어 한국 SF의 서지사항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헨델박사〉에 나오는 인조인간에 대한 이중적인 대중 감성을 논하기 위해 이우영의 『인조인간사건』을 함께 분석하였음을 밝힌다.

주제어: 1940년대, 1950년대, 『신시대』, 「태평양의 독수리」, 「소신술」, 〈헨델박사〉, 원자탄, 발명과학, 인조인간, 디스토피아, 전쟁, 무기, 공상, 현실, 비관적, 전망, 지구 종말, 공포

목차

1. 서론: 발명과학과 디스토피아, 그리고 인간의 욕망
2. 1940년대 발명과학의 실제적 공포와 디스토피아-『신시대』의 가상소설 「태평양의 독수리」와 과학소설 「소신술」
3. 인류 대재앙의 디스토피아와 발명과학(인조인간)에 대한 양가성-〈헨델박사〉(1952)와 『인조인간사건』(1946)
4. 결론: 현실과 공상의 거리-낙관적 전망으로 나아가기

한편으로, 환상은 세계를 미화한다.
또 한편으로 환상은
세계를 중화시킨다.
- 수전 손택

1. 서론: 발명과학과 디스토피아, 그리고 인간의 욕망

공상과학[1)]은 종종 현실과 괴리되거나 실현 불가능한 망상으로 오인되어 왔다. 특히 1960년대에서 1970년대 호황기를 누렸던 공상과학 만화와 만화영화에 붙은 수식어로써, 어린이 청소년들이 보는 오락물로 여기는 것이 일상사였다. 우주, 로켓, 거대로봇, 우주괴물, 우주비행사, 화성 등 지금 여기의 현실과는 동떨어져서 실감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상과학이 현실과 간극이 벌어질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로 꿈을 꿀 수 있었다. 반면, 공상과학이 현실과 거의 일치하거나 현실 그 자체가 되는 순간, 그것이 엄습하는 실제적 공포는 상상을 초월한다. 우리가 공상했던 미래 중 아직 실현되지 않은 것은 허버트 조지 웰스가 공상했던 『타임머신』과 『투명인간』의 세계이다. 미래로 여행할 수 있는 시간장치나 투명인간이 되는 약품은 우리가 한 번쯤 욕망했던 세계이다. 그러나 우리가 웰스의 공상과학에서 섬뜩한 공포를 느끼는 것은, 웰스가 그린 미래세계나 투명인간이 실제가 되었을 때를 상상해 보았을 때 끔찍하기 때문이다. 그런 발명이라면 차라리 발명되지 않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공상이 현실이 되었을 때의 공포를 이기는 것은 인간의 욕망이다. 인류는 1, 2차 세계대전에서 수많은 신무기가 전

1) 본 논문에서 SF의 번역어로 공상과학이란 용어를 택한 것은, 〈헨델박사〉와 같은 공상과학 만화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과학소설이란 번역어로 사용하려면 과학만화로 언급해야 하는데, 과학만화, 과학만화영화라는 용어는 대중에게도 연구자에게도 어색하다. 공상과학이란 용어는 소설 이외의 만화(영화) 매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차용했음을 밝힌다. 더불어 필자는 '공상과학'이란 용어에서 '공상'에 씌워진 부정적인 함의를 벗기고자 하는 의도로 이 용어를 앞에 내세웠다. SF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되는데 굳이 공상과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필자가 서구 작품이 아닌 한국 작품으로 한국 사회의 감성을 추적하는 작업을 해왔기 때문이다. SF 대신 당대 국내에서 사용된 용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의도가 들어가 있음을 미리 밝히고 시작하고자 한다. SF가 무엇인지에 관한 장르 자체의 규명보다 당대 사회문화사적으로 국내에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를 밝히고자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반부에 서구 영화와 함께 장르의 계보 상으로 논의를 진행할 때는 SF라 명명하였다.

쟁 병기와 살인 도구로 자행된다는 것을 경험했음에도 더 강력한 무기를 원한다.

그러나 공상과학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발명이 실제로 실현되었을 때, 우리는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 공상과학은 현실과의 간극이 벌어져야 현실을 미화하거나 중화시키는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며 독자가 숨을 쉴 수 있다. 공상과학은 현실이 아닌 미래를 담보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펼쳐질 미래가 디스토피아라는 것은, 현실이 지구의 종말을 예견할 정도로 절망적이라는 말이다. 우리는 암울했던 식민지시기에도 발명 공상과학으로 좀 더 나은 미래를 꿈꾸었다. 공상과학의 비현실성이나 실현 불가능성은 종종 공상과학을 폄훼하는 부정적인 뉘앙스로 우리에게 인식되었다. 그러나 공상과학이 실현된다는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꿈꾸는 공상과학이 인류를 잿빛으로 전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수 있다는 데 섬뜩해진다. 꿈도 함부로 꿀 수 없는 것은 바로 공상과학이 꿈이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은 과학 발명이 인류에게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는 충격을 던져 준다. 독일의 신무기가 2차대전 중에 가장 많이 발명되었고, 화학실험으로 인한 의학도 그 기간중에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2차 세계대전과 원자탄은 전 인류에게 대재앙의 공포를 안겨 주었다. 핵이 가져오는 대재앙의 공포는 바이러스나 자연재해가 주는 공포와 다르다. 바이러스나 자연재해는 인류의 발명이나 이기적 욕망이 불러온 것이 아니어서, 바이러스가 퍼졌을 경우 인류는 치료약이나 백신을 개발하고자 하는 데 온 힘을 기울이고 자연재해 역시 복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은다. 그러나 원자탄의 공포는 극과 극으로 나뉠 수 있다. 원자탄의 발명도 전쟁에서의 자국(내편)의 승리를 욕망하는 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인류에게 대재앙을 가져올 것을 알면서도 전쟁에서 이기고 싶은 욕망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된다. 그래서 핵을 없애지 않고 핵을 둘러싼 긴장 관계로 전쟁을 종식하기도 하고, 휴전을 유지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한다.

2차대전을 둘러싼 발명과학은 이처럼 처음부터 전쟁을 염두에 두고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시점에서 상대편을 멸망하게 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핵을 둘러싼 국가 간의 입장에서 남한도 애매하고 모호한 위치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1940년대 태평양 전쟁에서부터 1950년대 한국전쟁을 거치고 원자로가 도입되던 1950년대 말까지 식민지 조선에서 남한 정부로 오기까지 원자탄을 둘러싼 입장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들여다보고자 한다.

국내에 가장 먼저 들어온 공상과학 작가는 쥘 베른이다. 쥘 베른의 뒤를 이어 초창기에 유입된 작가는 허버트 조지 웰스이다. 허버트 조지 웰스의 『타임머신』은 1920년 4월 『서울』에 김백악 역으로 실렸으나 끝을 맺지 못했다. 1926년 11월부터 12월까지 『별건곤』에서 영주 역으로 번역되어 연재되었으나 역시 도중에 중단되고 만다. '미래'를 그리는 당시의 다른 공상과학소설이 '이상촌'이나 '이상향'을 그리는 데 반해, 웰스의 미래는 디스토피아적 전망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2] 암울한 식민지시기에 대중은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어서 미래까지 잿빛으로 물들이기를 원치 않았다. 1930년대까지도 전기, 전신, 비료, 물감 등의 화학이나 물리에서 발명 · 발견을 통한 호기심과 기대를 품고 있었다. 이러한 발명 · 발견으로 미래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것이라 기대했던 장밋빛 전망은 1940년대가 되면 전쟁이 모든 것을 잠식시켜서 웰스가 예견했던 디스토피아적 전망으로 바뀐다.

1940년대로 오게 되면 비행기, 전기, 통신, 기차 등 생활의 편의보다 전쟁에서 승리를 담보하는 무기와 병기를 위한 발명과학이 온통 신문이나 잡지의 지면을 장악하게 된다.[3] 비행기가 아닌 최신 전투기, 기차가 아닌

2) 최애순, 「1920년대 미래과학소설의 사회구조의 전환과 미래에 대한 기대-『팔십만년후의 사회』, 『이상의 신사회』, 『이상촌』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41, 2020. 상반기, 40-41면 참조.

3) 독일의 신무기 발명은 2차 세계대전 기간인 1940년대에 황금기를 이루었다고 한다.(로저 포

잠수함이나 항공모함이 최고의 발명으로 등극하게 된다. 1940년대는 우리에게 막연하던 발명과학이 실제로 전쟁의 승리를 이끌고, 다른 나라를 파괴하는 실제적 현실이 됨을 경험했던 때이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터지는 것을 목도한 경험은 전 세계에 '인류 대재앙'에 대한 디스토피아를 퍼뜨렸다. 공상과학 영화에서 터지는 원자폭탄은 이제 공상의 영역이 아니라 실재하는 '현실'의 공포가 된다. '실제적 공포'가 주는 미래에 대한 위기감은 개별 존재의 생존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생존과 직결된다. 그래서 인류 대재앙에 대한 영화나 소설이 핵폭발 이후 미국과 독일에서 반복해서 생산된다.

그러나 한국은 전쟁을 둘러싼 발명과학에 대해 미묘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1940년대 태평양 전쟁을 둘러싸고 독일, 미국, 일본 사이의 전투기, 항공모함, 폭격기 등의 공군력과 해군력을 강화하는 군대 병기 발명과학을 식민지 조선인의 눈으로 목격하고, 미국의 원자폭탄으로 느닷없이 해방을 맞이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한국전쟁기에도 트루먼 대통령이 원자탄도 불사하겠다는 선언에 원자탄이 터지면 다 죽겠지만 전쟁이 종식될 수 있다는 위기와 불안과 안도와 흥분 등의 다층적 감정에 휩싸이게 된다. 1950년대 남한은 원자탄에 대한 공포보다 낙관적 기대를, 전쟁의 피폐함보다 극복과 재건의 의지를 굳히며 앞으로 달려 나가기 급급했다. 그리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려는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 기획은 '과학정책'과 함께 시행되었다. 1950년대 전후 작가의 문학에서 전쟁의 트라우마나 비정상성, 불구가 된 몸으로 사회에 부적응한 인물들이 그리는 암울하고 비참한 곰팡이 핀 냄새는 공상과학에서 볼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1940년대 발명과학이 실제적 공포가 되었던 순간과 1950년대 한국전쟁의 트라우마를 전후 작가가 묘사한 것과는 다르게 공상과학에서는 미래에 대

드, 『2차대전 독일의 비밀무기』, 김홍래 역, 플래닛미디어, 2015) 인류 전체의 폐허와 재앙을 낳은 전쟁의 기간이 발명의 황금기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은, 발명이 실제적 공포가 됨을 알면서도 중단하지 않는 인간의 욕망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한 낙관적인 기대와 꿈으로 치환시키며 극복을 향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본다.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 공상과학에서 로봇, 우주선, 비밀 설계도 등을 둘러싸고 우주인과 싸워서 이기거나, 새로운 우주 행성을 개척하는 서사는 바로 전쟁의 트라우마로 인한 비관적인 전망을 낙관적인 에너지로 치환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공상과학에서의 발명이 인류의 대재앙이나 부작용으로 인간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디스토피아적 전망은 1940년대와 1950년대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한국 공상과학에서는 1950년대 초반에 보이던 디스토피아적 전망이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사건 이후로 우주 개척의 서사로 바뀌게 되면서 낙관적 기대와 꿈으로 전환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발명과학의 계보에서 비관적 전망으로 점철되었던 시기에 집중하여 발명과학이 실제가 될 때의 공포를 들여다보고자 한다. 인간이 발명한 혹은 공상한 모든 것이 '실제'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함부로 발명하거나 공상하거나 꿈꿀 수 없다. 그것이 실제가 되었을 때의 결과나 효과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발명에 대한 공상이 현실과 거리가 좁혀진다면, 우리가 미래를 공상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힘겨워진다. 아무리 현실을 벗어나 미래를 공상하려 해도 현실의 압박이 강하게 조여오기 때문이다. 1940년대는 태평양을 둘러싼 전쟁의 기운이, 1945년 이후로는 핵폭발의 기운이, 그리고 1950년 이후는 한국전쟁의 기운이 모든 현실을 압도한다. 아무리 미래를 공상하려고 해도 현실이 암울하고 절망적이어서 웰스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이동하는 동안 계속해서 '섬뜩한 황량함'을 마주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1940년대 태평양 전쟁기에 간행된 『신시대』에 실린 미래전쟁소설(가상소설) 「태평양의 독수리」와 과학소설 「소신술」[4]을 통해 미래를 공상하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린 현실의 실제적 공포와 발명과학

4) 미래전쟁소설이나 과학소설은 자칫 용어상의 혼란으로 보일 수 있으나, 1940년대 당시 게재될 때 달린 장르명을 그대로 가져온 것임을 밝혀 둔다.

이 낳은 디스토피아적 전망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1940년대는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투하되기 전까지 인류 대재앙의 공포보다는 경계를 두고 편을 갈라 '우리 편'이 이기기를 욕망한다. 그러나 핵실험과 핵폭발로 세계 전역에 '지구 종말'의 기운이 짙게 드리우게 되고, 1950년 한국전쟁을 치르는 한반도 역시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1952년 전쟁기에 껌딱지 만화로 발간된 〈헨델박사〉는 '지구의 마지막 남은 인간'으로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1959년 한낙원의 『잃어버린 소년』이나 김산호의 공상과학 만화 〈라이파이〉에서 디스토피아적 전망은 낙관적인 기대로 바뀌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낙관적 전망으로 바뀌기 전 디스토피아적 전망을 드러내며 미래를 공상할 여유가 없이 현실의 공포가 잠식했던 시기를 따라가 보고자 한다. 「태평양의 독수리」를 제외하고[5] 「소신술」과 〈헨델박사〉는 연구된 바가 없어 한국 SF의 서지사항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헨델박사〉에 나오는 인조인간에 대한 이중적인 대중 감성을 논하기 위해 이우영의 『인조인간사건』[6]을 함께 분석하였음을 밝힌다.

2. 1940년대 발명과학의 실제적 공포와 디스토피아-『신시대』의 가상소설 「태평양의 독수리」와 과학소설 「소신술」

1) 가상이 실제가 되는 순간-「태평양의 독수리」

수전 손택은 1940년대가 공상과학적 주제들이 끊임없이 변주되어 이 장르의 전성기를 누리던 때였다고 한다.[7] 1940년대 국내에서는 주로 방

5) 「태평양의 독수리」에 관해서는 우정덕이 2013년 2월 한국현대문학회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다.(우정덕, 「총동원체제 하의 대중소설과 그 의미-安田敏의 「太平洋의 독수리」, 「싸움하는 副丹粧」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자료집』, 2013.2, 72-79면)

6) 이우영의 『인조인간사건』은 『한국현대장편소설사전』에 1946년 보문서관 · 우신상사출판부판으로 등재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1953년 창문사 판을 인용했음을 밝힌다.

첩소설과 스파이소설 계열의 작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공상과학 소설이나 공상과학 영화는 해방 이후 1950년대가 되어서야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창작된다. 1950년대 공상과학에서 보이는 비밀 설계도, 과학자 납치, 세계연방국가, 국제회의, 핵폭발, 핵전쟁 등과 같은 소재는 1940년대부터 보아 오던 것들이다. 1930년대까지 국내에서 발명과학은 그것이 가져오는 신도시, 신문명의 이기로 인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으로 차 있었다. 그러나 1940년대 전쟁의 기운과 함께 발명과학은 신무기 개발에 주력하였고, 실제로 독일의 신무기가 전쟁의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직접 경험한 각국은 전투기, 폭격기 등에 조금이라도 더 최첨단, 누구도 생각지 못한 기발한 무기를 개발하려는 치열한 각축을 벌였다.[8] 특히 일본은 독일의 '기계화 부대'에 대한 선망을 드러내고 그를 쫓아가기 위한 전 군의 첨단 기계화를 목표로 전투기와 폭탄 제조 기술에 총력을 쏟았다. 세계 각국은 독일의 신무기를 알아내려는 기민한 움직임이 일었고 철저한 '비밀'을 유지하려는 전략에도 무기가 완성되기 전에 비밀 설계도가 유출되거나 하는 사례가 벌어지기도 했다.[9] 발명과학은 온통 신무기 개발에 쏠렸으며, 신무기 설계도는 국가의 최고 기밀이었다. 이를 둘러싼 각국의

7) 수전 손택, 『해석에 반대한다』, 도서출판 이후, 2013, 316면.

8) 독일은 2차대전에 수많은 전투기와 폭격기를 내놓았는데, 그때마다 새로운 이름을 달고 더 창의적인 것을 내놓으려고 안간힘을 쏟았다. 특히 2차대전의 승기가 미국 쪽으로 기울고 독일이 우세한 기운을 유지하지 못하고 기울게 되었던 1940년대 폭격기 발명보다 '전투기' 쪽으로 방향을 돌려 폭발적인 발명을 내놓았다.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은 독일의 기밀과 과학자를 미국으로 데려가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그만큼 신무기 개발 경쟁이 극에 달했고 아이러니하게도 1940년대는 전쟁으로 암흑기였음에도 '무기 발명의 황금기'였다.(로저 포드, 『2차대전 독일의 비밀무기』, 김홍래 역, 플래닛 미디어, 2015, 210-215면 참조)

9) 1945년 5월 독일의 Ju 287 V1과 미완성인 Ju 287 V2가 소련으로 넘어갔다고 한다.(로저 포드, 『2차대전 독일의 비밀무기』, 김홍래역, 플래닛미디어, 2015, 27면) 1940년에서 1945년 사이 살인광선과 비밀무기 설계도를 빼앗으려는 모티프가 탐정소설과 공상과학의 주요 소재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1940년에 발표된 김내성의 「비밀의 문」(『농업조선』, 1940)도 딸이 꾸민 연극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당시 비밀무기 설계도를 둘러싼 암투가 여기저기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스파이가 암투를 벌이는 방첩소설이 나온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10] 독일과 영국을 둘러싼 잠수정, 스파이 등의 눈치작전은 1940년대로 들어서게 되면서 미국과 일본의 불안한 기류로 옮겨져서 태평양을 둘러싼 전운이 동아시아 전역에 감돌게 된다. 1940년의 미국과 일본 사이의 팽팽한 긴장과 불안한 기류는 잡지 『신시대』에 투영되어 있다.

1941년 1월 馬尾山人의 「태평양의 전망」은 '무시무시해지는 태평양의 풍운'을 묘사한다. 「태평양의 전망」에서 태평양을 둘러싼 전운이 '만약 실제로 전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이라는 가정으로 이어진다. '영국과 미국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다면'이라는 가정하에 미국의 함대나 해군력이 일본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태평양 전쟁에 대한 가상설정은 공상보다 실제로 다가왔을 것이고, 현실을 압박하는 불안과 공포가 한반도를 휘감았다고 볼 수 있다. 「태평양의 전망」에서 영국과 미국과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공상은 1941년 2월 안전민의 「태평양의 독수리」라는 제목의 가상소설에서 고스란히 재현된다.

> 人類의 文明은 **科學의 進步**에딸아 向上하고, 또 機械力에 依하야 文化는 進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科學의 힘과 機械의 힘의 精華**를 다하야, 이것을 가장 應用하는 것은 兵器다. 그래서 學者들은 '**兵器는 科學의 最高峯**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어째든지간에 지금의 **戰爭은 機械化戰**이다. (「科學小話 軍機械化란?」, 『신시대』, 1941.1, 213면)
>
> 그러나 미국과의 충돌이 생긴때에는 어떻게 되겠다는 **가정(假定)**을 하

10) 1940년대 태평양 전쟁 시기에 간행된 『신시대』에는 식민지시기 탐정소설 작가인 김내성의 방첩소설 「매국노」가 실려 있다. 1940년대 방첩소설이 국내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성행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김내성의 「매국노」가 문제인 것은, 식민지 조선인의 스파이 활동은 곧 일제를 위한 '친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정혜영과 김성연의 논문을 참조할 것.(정혜영, 「방첩소설 「매국노」와 식민지 탐정문학의 운명」, 『한국현대문학연구』 24, 2008.4, 275-302면; 김성연, 「방첩소설, 조선의 총동원체제와 국민오락의 조건」, 『인문과학논총』 37, 2014.2, 217-239면)

여본다면, 미국은 오늘에 있어서, 일본함대를 격파할만한 자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해군력을 멀리 극동에까지 파견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무력을 즉접 쓰지않더라도 일본을 타도할 수있다는 수단으로서 경제전쟁(經濟戰爭)을 계획할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으로서는 공영권내(共榮圈內)에 포함된 지역(地域)을 점거하고서 장기전(長期戰)에 필요한 물자를 확보하여서 경제고갈전에 대처(對處)할 방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될터이므로, 극동에 있어서는 극동수역(極東水域) 내에 남어있는 미국의 극동함대(현재 순양모함 두척이하의 함대가 있으나 형세가 급박해지면 대부분 먼저 물러갈것입니다마는) 와의 사이에 적은 충돌이 있을것이나 그것이 일단락을 고하면 당분간은 통상파괴전(通商破壞戰)은 없을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以上)은 영미양함대와 일본과의 싸움을 분리해가지고 생각한것이나, 결국 싸움이 벌려만 진다면 이상의 두경우가 동시에 행해질것이라는 것을 우리들은 각오하여야 할것입니다.(〈戰雲싸움이 폭발(爆發)벌어지게 되면〉 장, 「태평양의 전망」, 『신시대』, 1941.1, 135면)

'과학의 힘과 기계의 힘을 가장 응용하는 것이 병기', '병기는 과학의 최고봉', '전쟁은 기계화전'임을 강조하는 1941년 당시 과학발명은 곧 신무기와 신병기의 개발로 직결되었다. 1941년 태평양을 둘러싸고 미국과 전운이 감돌던 당시 '싸움이 벌어지게 되면'이라는 가정은 먼 미래의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피부로 느끼는 실제 현실이었다. 안전민의 미래전쟁소설 「태평양의 독수리」는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하기 불과 몇 달 전에 쓴 가상소설이다. 도입부 작품 소개에서 "이 一篇은 **假想小說**이다. 그러나 帝國航空隊는, 이와같은 忠烈勇敢한 情神으로 뭉치고 당치어 있는 것이다. 壯烈한 一對百五十의 **大空中戰!** 將來할 세계를 바라볼 때, 그 누가 **實戰**이 아니라고 할 것이랴."(115면)라고 가상소설임을 밝히고 있다. 다가올 세계의 동향을 고려할 때 '실전'에 다름 아님을 강조한다. 미래 전쟁소설임에도 다른 공상과학에서 미래를 그리는 것과 달리, 작품의 시공간 배경이

태평양을 둘러싼 1941년 현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태평양을 끼고 벌이는 전쟁인 만큼 '대공중전'에 걸맞게 전투기, 증폭기, 폭격기, 항공모함의 숫자와 성능 정도가 전투력으로 환산된다.[11] 적군의 비행정을 몇 대나 격추했는가, 적국의 주요 건물을 얼마나 폭격했는가 하는 것이 비행사의 업적으로 인정되었다. 고등비행훈련을 하다 부상으로 해군병원에 입원한 하나다 二공조는 퇴원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

> 일본과 미국 두나라가 태평양을 사이에 놓고 드디어 전단(戰端)을 열게 된후 이미 五개월이다. 미국을 일본이 맹주(盟主)가 되어 확립된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으로 말미암아 극동에있는 미국의 권익(權益)이 一소(掃)될 것을 염려하고 드디어 금년 四월에 대일선전포고(對日宣戰布告)를 한 것이다.(「태평양의 독수리」, 『신시대』, 1941.2, 116면)
>
> 그들이 타고 있는 항공모함 세이류우는 낮이면 초계(哨戒)의 정찰대(偵察隊)의 지도를 따라 적 공군의 눈을 피해 가며 복잡한 침로(針路)를 취하여 혹은 동으로 혹은 서로 항주(航走)하면서 적도 부근을 향하였다. 그리하여 이튿날 저녁때에는 남양령의 최남단 크리이도 동편 백二十킬로의 해면(海面)을 남쪽으로 빠졌다.(「태평양의 독수리」, 『신시대』, 1941.2, 122면)
>
> "크리이도는 헐수없다지만 한달 전엔 타리이트도가 폭격을 당해서 무전(無電), 철탑(鐵塔)이 산산조각이 났다지. 그대신 적군의 비행정을 세대나 격추(擊墜)했다지만 ……."(「태평양의 독수리」, 『신시대』, 1941.2, 121면)

「태평양의 독수리」는 공중의 전투기가 날아다니는 장면의 삽화로 시작한다. 대개의 전투는 공중전에서 적의 전투기나 비행정을 몇 대나 격추시켰는가, 혹은 바다에서 적의 군함을 몇 대나 격퇴했는가, 그리고 폭격기로 적군 영역의 군사기지나 산업기지의 주요 건물이나 송신탑을 붕괴했는가로 결정이 난다. 그러다 보니 전투기, 비행정, 폭격기, 증폭기 등의

11) 로저 포드, 『2차대전 독일의 비밀무기』, 김홍래 역, 플래닛미디어, 2015.

공중전의 최신 병기가 앞다투어 발명되었다. 역사적으로 최신 병기가 가장 많이 발명된 시기는 이차대전이었고, 가장 많은 신병기를 개발한 국가는 독일이었다.[12] 독일의 최신 병기와 화학무기는 이차대전이 끝난 후 미국에서 가져가려고 했으며, 실제 독일의 과학자를 포섭하여 미국에서 활동하도록 하는데 적극적인 개입을 하였다. 전쟁과 동시에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발명이 행해졌다는 아이러니는 그동안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를 품었던 발명과학이 잿빛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불안과 긴장을 불러왔다. 그런데도 인간의 전쟁에서 이겨서 세계를 제패하려는 욕망은 광기 어린 신병기 발명과 무자비한 실험을 자행하도록 했다.

1940년대 발명과학은 과학의 이중성과 무자비한 힘에 대해 실제적 공포를 느끼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쟁에서 승리하려는 인간의 욕망을 이기지 못했다. 신병기 발명과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한 기대심리는 1945년 핵폭발 이후 전 세계가 잿빛으로 물들면서 '인류의 대재앙'에 대한 디스토피아로 가라앉게 되었다. 수전 손택이 「재앙의 상상력」이란 글에서 공상과학영화를 예로 들어서 설명한 것은 '재앙'에 대한 막연했던 그림이 바로 핵폭발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구체적 형상으로 상상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신시대』에 『매국노』를 연재한 작가 김내성의 1940년 발표작 「비밀의 문」은 당시 국내에 감돌던 전쟁의 분위기와 신병기 발명에 대한 치열한 경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12) 1941년 1월 『신시대』에서 「최신병기전관 제1부」에서 폭탄을 다루고 있는데, 이때 발성폭탄이나 파괴탄을 설명할 때, "독일서 만들어낸것인데 인심을 소동시키자는 폭탄이다. 영국서는 그 소리가 무서워서 자살까지 한 사람이 다 있다고한다."(217면), "이거야말로 폭탄이니 이번 전쟁에 피차가 서로 기가 나서 사용하는것이다. 그중에도 독일서 쓰는 폭탄은 무게가 이천오백근, 이놈의 땅에 떨어지면 사방열간둘레로 사간 깊이를 파내는데 서울로 치면 '반도호텔'이라도 한방에 밑바닥까지 부셔지는 위력이 있다."(218면)이라고 독일의 최신병기의 위력을 내세우고 있다.

강세훈 박사! 그렇다, 제군은 신문지상이나 혹은 잡지 같은 데서 **살인광선(殺人光線)** 연구자로서 유명한 이학박사(理學博士) 강세훈씨의 이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며, 다년간 연구 중에 있던 그 무서운 살인광선이 이즈음에 이르러서는 거의거의 완성에 가까웠다는 소식을 들었을 줄로 믿는다./ **제3차세계대전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즈음,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앞을 다투어 가면서 **신병기 발명**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즈음에 강세훈 박사의 살인광선이 거의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비단 우리들만의 자랑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경이의 적이 아닐 수 없었다.(김내성, 『비밀의 문』, 명지사, 1994, 14면)

해외의 신문은 구라파 어느 나라에서 살인광선을 발견하였다는 소식을 때때로 전하지마는 그것은 모두 허위의 풍설임을 면치 못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이 서로 먼저 이 **무서운 병기 살인광선을 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일는지 알 수 없으나, 그러나 그것은 아직 극히 소규모의 것이므로 실전쟁에 사용하기까지는 아직 기나긴 시일이 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증거로 이번에 일어난 세계대전에서 아직 살인광선을 사용한 나라는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 그간의 소식을 넉넉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14면)

근래의 전쟁이 과학의 전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마지노선이 그처럼 쉽사리 격파된 것은, 첫째로는 프랑스의 작전상의 오산도 오산이려니와 무엇보다도 정예한 **독일의 기계화 부대**의 힘이 컸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13](14면)

김내성의 「비밀의 문」은 의문의 그림자가 살인광선 설계도를 빼앗아 가려는 통보를 보내고 위협하는 내용의 탐정소설 형식으로 전개된다. 그러나 살인광선을 연구하는 강세훈 박사의 비밀 설계도를 둘러싼 쟁탈전

13) 1940년 6월 25일 프랑스 정부가 나치 독일에 공식적으로 항복한 일을 일컬음. 이후 독일의 영국 침공(실패로 끝남), 일본의 진주만 습격이 1940년에서 1941년 사이에 일어난 중요 전쟁이었다. 「비밀의 문」은 독일의 프랑스 함락 직후에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은 이후 국내 공상과학소설에서 종종 등장하던 모티프이다. 1940년대 방첩소설에서도 비밀무기 설계도가 주요 모티프로 등장한 것으로 보아서, 이 시기 신무기 발명에 대한 경쟁이 제국들 사이에서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독일이 프랑스를 함락한 전쟁을 언급함으로써, 당시 독일의 기계화 부대에 대한 일제의 선망이 컸음을 드러내고 있다. 결국 태평양전쟁은 원자탄이 터지며 종결된다. 발명과학의 디스토피아를 예견했던 웰스가 원자탄이 터지는 것을 목도한 것은, 섬뜩하고 비극적이다.

1940년대 전쟁 무기 발명과 핵실험을 둘러싼 불안과 염려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이 떨어진 이후 1950년대 전 인류에게 '대재앙 공포'로 확산되었다. 김내성의 「비밀의 문」에서 예견한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한 불안은 해방 이후 냉전 체제가 되면서 국내 공상과학 계보에서 계속 이어진다. 1959년 〈라이파이〉에서는 제3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것을 염려하여 세계연방정부를 결성하는가 하면, 1965년 문윤성의 『완전사회』에서는 이미 제3차 세계대전은 벌어졌고, 제4차 전쟁에 이어 제5차 전쟁까지 예고하고 있다. 1940년대 극단으로 치달았던 신무기 선점권과 쟁탈전은 핵폭발 이후 1950년대 미·소 냉전 체제에서 오히려 더 극대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소 냉전 체제에 끼인 남한은 1950년대를 어떻게 극복했을까. 1960년대와 1970년대 국내 공상과학은 국가의 과학교육 정책과 함께 발전·진보를 향한 낙관적인 기대와 전망으로 기울게 된다. 본 논문은 공상과학이 낙관적인 세계관으로 기울게 되기까지의 남한의 복잡한 속내와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감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공상과학이 현실이 되는 것을 목도한 1940년대의 발명은 전투기, 폭격기, 항공모함 등 모두 전쟁의 '실제' 병기였다. 로케트, 우주선이 등장한 것은, 1950년대 후반이 되어서이다.

2) 인간이 발명과학의 실험대상이 될 때- 「소신술」

발명과학의 대상이 멀리 있을 때나 막연할 때는 두렵지 않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와 같은 살아 있는 생명체가 될 때, 더 나아가 인간 그리고 내가 될 수 있을 때 섬뜩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웰스의 『투명인간』 역시 과학자가 자신이 발명한 약을 직접 먹고 자신이 실험대상이 된 경우이다.[14] 투명인간은 나는 상대가 보이지만 상대는 내가 보이지 않는다. 이때의 발명과학은 나와 타자를 구분하는 경계가 지워진다. '나의 몸이 남에게 보이지 않는 투명인간이 된다면'이라는 공상은 누구나 한번 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막연하게 남몰래 자유자재로 나가거나 들어올 수 있고, 남의 물건을 가져올 수 있거나 하는 공상은 웰스의 『투명인간』에서 씁쓸하고 비극적인 감정으로 완전히 뒤바뀐다. 세상의 '괴물', '악'으로 규정되어 표적이 되다가 결국 비참하게 만신창이로 죽음을 맞이하는 투명인간의 최후를 보았기 때문이다. 막연하게 공상했을 때는 즐거운 유희였는데, 막상 실제로 실현될 것을 상상했을 때 그것은 끔찍한 공포에 다름아니었던 것이다. 투명인간이 된다는 것은 내가 실험대상이 된다는 말이다. 우리는 막연하게 공상만 했지 내가 실험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가정은 해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웰스의 '투명인간'이 실현되지 않은 공상임에도 섬뜩한 것은, 인간이 발명과학의 실험대상으로 이용되었던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2차대전과 1940년대는 실제로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이 자행되던 때[15]였으므로 더욱 끔찍하게 다가올 수 있다. 양차대전을 실제로 지나온 웰스는 발명과학이 전쟁의 살인 기계와 도구로 쓰

14) 웰스의 『투명인간』은 세계공포괴기걸작선에 『공포의 투명인간』(꿈나라, 1991)이라는 제목으로 출간되기도 한다.

15) 일본의 마루타 실험, 독일의 세균 실험. 김내성의 「매국노」(『신시대』, 1943.2~)에서 세균 쟁탈전은 '세균'이 전쟁의 무기로 이용되었으며, 이용하기 전에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을 것이란 전제와 가능성을 반영한다.

이던 것을 실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타임머신이나 투명인간이라는 발명이 인류에게 불안하고 위험한 미래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인간이 나와 타자를 구분하려는 이기적인 욕망의 존재라는 점을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신시대』의 「소신술」(1941.5)은 바로 인간이 발명과학의 실험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점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과학소설이란 표제를 달고 있는 「소신술」은 수령 울스키를 조롱하고 비웃음으로써 희극적인 효과를 유발하지만, 그 웃음은 씁쓸하다. 식민지 조선인이었던 우리는 유리벽 밖의 울스키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유리벽 안의 울스키에 감정이입되기 때문이다. 소신장치는 전기회절경을 이용하여 나는 타인이 보이나 타인의 눈에는 내가 보이지 않는 기계이다. 남산수의 「소신술」은 한국 SF의 계보에서 김동인의 「K박사의 연구」의 뒤를 이어 '엉뚱한 공상'으로 블랙코미디를 자아내는 작품이다. 타인의 눈에 보이지 않는 소신장치의 발상도 엉뚱하지만, 그것을 이용하여 수령 울스키에게 복수하는 이유가 털 하나 때문이라 어이없고 황당하다. 양박사는 수령 울스키에게 훔쳐 간 황금고리를 돌려달라고 요청하고, 울스키는 소신장치의 실험을 보여주면 돌려주겠다고 한다. 양박사는 파리 두 마리에 소신장치를 실험하여 눈에 보이지 않으나 소리는 들림으로 파리가 유리병 안에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돌려받은 황금고리 안에 정작 중요하게 있어야 할 털이 사라져 버리자 분노를 참지 못한다. 울스키는 그깟 털 하나를 찾는 양박사가 망령이 난 것처럼 보이는데 양박사는 "그게 세상에 둘도 없는 보물이거든. 십만메돌되는 하늘 꼭대기에서 구한 진기한 털이거든. 그것을 가지고 잘 조사해보면, 다른 유성(遊星)에 사는 생물들을 잘 알아낼수가있을거람 말야. 세계에 단 한개 밖에 없는 털이거든."(250면)이라며 얼른 내놓으라고 한다. 결국 털을 되찾지 못한 양박사가 수령 울스키이자 대동일보 사장인 올란드를 소신장치로 실종되게 만듦으로써 복수를 한다. 김동인의 「K박사의 연구」에서처럼 발명과학이 터무니없고 어처구니없다는 인식과 과학자(발명

가)의 미치광이 같은 성향을 보여 준다.

「소신술」에서 다른 유성에 사는 생물 털 하나로 촉발된 양박사의 복수는, 자신의 소신장치를 써서 울스키를 유리벽 사이에 가두고 거리의 사람들이 구경하게 하여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다. 우스꽝스럽고 터무니없는 설정 때문에 가벼운 웃음을 유발하지만, 「소신술」은 인간이 실험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끔찍한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그 웃음의 끝은 씁쓸하다. '만약 내가 동물원의 원숭이처럼 실험대에 오르거나 발명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면'이라는 가상은 실제 전쟁의 학살과 실험을 떠올리게 하면서 우리에게 섬뜩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섬뜩함은 거리의 사람들이 울란드씨를 보고 웃는 웃음이 인간이 아닌 화성 생물이 아니라 바로 식민지 조선을 살았던 우리를 향한 것일 수 있다는 현실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처럼 1941년의 『신시대』의 발명과학은 우리에게 낯설어서 너무 먼 미래에 대한 기대와 꿈을 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현실 그 자체가 되면서 실제적 공포와 섬뜩함을 불러일으킨다. 발명과학의 황금시대가 디스토피아적 전망으로 귀결된다는 것은 아이러니하다.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독일의 신무기와 미국의 원자탄과 영국의 항공모함으로 전쟁을 하는 세계전은 식민지조선과는 무관한 세계임을 암시한다. 그러나 우리가 발명한 무기가 아니고 우리가 나눈 경계가 아니지만, 타격과 충격을 고스란히 떠안는 것은 식민지 입장에서 태평양 전쟁을 지켜보았던 조선인일 수밖에 없었다.

> 그는, 벌써 한 열흘동안이나, 소란한 거리를 내다보며 지낸것이었다. 그는, 쇼-윈도만한 커단 유리창을 통하여 이날 이때까지 밧갈을 내다보고 지낸것이었다.(1941.5, 253면)
>
> 그제서부터 이 길다란 **쇼-윈도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는 거기서 한발도 밖에 발을 내놓을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는 눈 앞을 지나가는이를 향하여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쳤다. 지나가는 사람이 혹 볼가 하고 유리창

을 들입다 두드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사람도 고개를 돌려보는이가 없다.(253면)

뒤가 마려울 때는, 그 구멍으로 들여보내준 요강을 사용하였다. 처음에는 사람이 번쭐나게 다니는 큰 행길을 앞에 두고 뒤를 보려니, 나오다가도 도루 들어가군 했으나, **이쪽에서 밖은 환히 내다보이되, 밖에서는 들여다보이지 않는 것**을 안다음부터는, 좀 덜 창피한 생각이 들었다. 하루 이틀 그러는 동안 그는 **동물원 원숭이** 모양으로 거리를 흘끔흘끔 내다보면서 뒤를 보게끔 되었다.(245면)

"자네가 손으로 만지는 유리하고 거리에서 보이는 유리하고의 사이에는, 오십쎈치의 틈이 있거든. 그리로, 내가 발명한 **전기회절경(電氣廻折鏡)을 사용한 소신장치(消身裝置)**가 돌아가고 있거든. **자네가 내다보면 밖이 보이지만 밖에서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안뵌담말야**. 그만하면 알았겠지."(254면)

"아니 저게 바루 행방불명이 된 울란드씨가 아니야."고 한사람이 웨치자, 이게 대관절 웬일니냐고 소동은 점점 더 벌어졌다. 이것은 양박사가, **소신장치의 회절경(廻折鏡)을 반대로 돌렸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다보이던 쇼-윈도 밖 광경은 아니보이게 되고, 그대신 여태 밖에서는 보이지 않던 쇼-윈도 내부가 환히 다 들여다보이게 된것**이었다. 그런 것을 통 모르고, 쇼-윈도 속의 울란드씨는 유유히 사람들이 들여다보는 곳에서 뒤를 보고 있는것이다. 구경꾼들은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벙벙이 서있다가, 입들을 틀어막고 킬킬거렸다. 온 저런 망신이 있나.(254면)

유리벽을 사이에 두고 울란드씨와 거리 사람들은 다른 세계에 놓인다. 소신장치의 회절경은 마치 허버트 조지 웰스의 '투명인간'처럼 누구나 남 앞에서 내가 보이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욕망의 실현이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한 순간 보이게 될 때의 현실을 꼬집고 있다. 남이 나를 보지 못하는 소신장치와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쇼윈도' 유리창은 『투명인간』에서 백화점에서 하루를 보내던 투명인간을 연상시킨다. 소신장치를 통

해 남의 눈에 보이지 않다가 안이 훤히 들여다보이게 된 울스키는 회절경이 반대로 돌려진 것도 모르고 볼일을 보고 있었다. 울스키가 뒤를 보는 광경을 목격한 구경꾼들은 어처구니없어하며 그 이후로 울스키를 예전과 같이 대하지 않는다. 당시 위생 관념을 두고 서양이 동양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포되어 있는데, 「소신술」은 보기 좋게 그것을 비웃는다. 서양의 양변기와 동양의 재래식 뒷간은 동서양의 문화 차이를 가장 많이 드러내던 것이었다. 「소신술」은 동양에 대해 늘 야만적이고 원시적이라며 조롱하던 서양[16]에 대해 남들이 보는 곳에서 요강에 뒤를 본다는 우스꽝스러운 양박사의 복수로 비웃어주고 있다. 그러면서도 동물원 원숭이가 된 울스키를 마냥 조롱할 수 없는 식민지 조선인의 이중적인 시선이 들어 있다. "**동물원 원숭이** 모양으로 거리를 흘끔흘끔 내다보면서 뒤를 보는"(245면) 울스키의 모습은 일제가 '인간동물원'을 만들어 우리에 가두고 구경거리로 삼은 '식민지 조선인 남녀'를 연상시킨다.[17] '쇼윈도'를 통해 보는 거리의 사람들이 인간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뒤를 보는 장면을 적나라하게 구경하는 것은 당시 서양 제국을 비롯한 일제의 인간을 전시하던 발상이 얼마나 잔혹한 것이었는지를 드러낸다. 창경궁 동물원에서 인수공통감염병에 관한 바이러스나 세균 실험을 자행했듯이, 1940년대 '인간동물원'은

16) 서양은 동양에 대해 늘 '미개'하고 '야만적'이고 '비위생적'임을 강조하였는데,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로 삼은 땅의 원주민을 데려와 마치 코끼리와 사자처럼 우리에 가둬두고 구경거리로 만들었던 '인간동물원'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황규정 기자, 「인간동물원 만들어 '조선인 남녀' 우리에 가두고 구경거리로 삼은 일본」, 『핫이슈』, 2018.9.18. 입력)

17) "박람회장에 조선 동물 두 마리가 있는데 아주 우습다"(『대한매일신보』, 1907.6.6.) 인간을 전시하여 동물원처럼 구경하도록 하는 서양 제국주의의 베낀 일본은 오사카에서 '내국권업박람회'에서 터키인, 아프리카인, 대만인, 중국인, 인도인과 조선인을 전시했다. 인간동물원이 호황을 누리자 다시 도쿄에서 '도쿄권업박람회'를 열어 조선인 남녀를 전시한다. 식민지인의 전시를 통해 일제는 조선인은 '미개'라고 '비위생적'이고 '열등'한 존재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다.(황규정 기자, 「인간동물원 만들어 '조선인 남녀' 우리에 가두고 구경거리로 삼은 일본」, 『핫이슈』, 2018.9.18.입력; 남종영 기자, 「창경원과 식민주의, 일본인-조선인-동물의 위계」, 『한겨레』, 2015.3.20.등록; 2011년 KBS 역사스페셜 〈조선 사람은 왜 일본 박람회에 전시됐나〉)

구경거리뿐만 아니라 인간이 발명을 위한 실험대상이 되는 비참한 현실을 보여준다. 「소신술」이 식민지 조선인으로서의 비참하고 잔혹한 현실을 꼬집어 주는데도 『신시대』에 실릴 수 있었던 것은, 현실이 아닌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코미디와 공상과학으로 '가장'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유리벽 안에 서양인 울스키를 구경하게 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인과 직접적으로 동일시되는 것을 피하여 대동아공영권 아래의 일제와 식민지 조선이 동시에 서양에 대한 통쾌한 복수를 가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이다.

양박사와 울스키가 새로운 발명인 소신장치를 두고 싸움을 벌였듯이, 1940년대는 신무기 비밀 설계도를 쟁탈하기 위한 스파이 작전이 횡행했고, 스파이 활동은 방첩소설의 소재나 모티프로 활용되었다.[18] 1943년 7월 『신시대』에 연재된 김내성의 방첩소설 『매국노』에서는 반도제약회사에서 '세균전'에 대비하여 개발한 신약의 출처를 알아내는 것이 재산을 탕진하고 자살하려 한 하상철에게 주어진 기회였다. '세균전'은 2차 세계대전에 전쟁의 무기로 이용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해야 했다.[19] 1941년 1월 『신시대』에는 전쟁의 불안한 기운과 함께 누구의 무기가 더 강력한가(누가 함대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 등)에 관한 무기를 비교하는 기사가 실린다. 「最新兵器展觀」 제1부로 〈폭탄〉에 관한 글이 실려 있다.[20] 소이탄, 발성폭탄, 파괴탄, 시계폭탄, 봉지폭탄, 와사

18) 김내성의 「비밀의 문」, 『태풍』, 『매국노』 모두 비밀무기 설계도를 둘러싼 암투를 모티프로 하고 있다.

19) 일본은 만주지방에 특수세균전을 위한 731부대(1940~1945)를 세웠다. 일본 나가사키 장기대학 쓰네이시 케이이치 조교수는 1981년 5월 〈사라진 **세균전** 부대〉란 제목의 연구서를 발표했다. 그는 "**세균전 전문부대**인 731부대가 유행성출혈을 **세균전**에 이용하기 위해 많은 한국인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인체실험까지 한 뒤 이들을 모두 독살했다."고 말했다.(「24년전 오늘, 일본군 731부대 생체실험 사진이 처음 공개됐다」, 『한겨레』, 2018.8.14. 등록); "일 방위청 보관 작전일지등서 찾아내 중국에 '페스트균 투입 벼룩' 공중살포", "2차대전직후 일본근해에 독가스폭탄 수만개 버려"(「731부대 **세균전** 자료 발견」, 『한겨레』, 1993.8.15.)

20) 안광호, 「最新兵器展觀 제1부 爆彈」, 『신시대』, 1941.1, 214-218면.

탄, 세균탄 등의 여러 폭탄 종류가 나열되어 설명과 활용법이 소개된다. 이중 와사탄이나 세균탄은 다른 폭탄과 다르게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해야 한다. 식민지시기 탐정소설이나 과학소설에는 독와사로 살인을 하거나 세균탄을 전쟁의 무기로 활용하는 장면이 종종 삽입된다.[21] 김내성이 「매국노」(1943.7~)의 배경으로 삽입한 '세균전'은 공상이 아니라 생생한 실제 현실이었다.

> 이건 전쟁을 안할때도 **적성국가(敵性國家)를 골려주려고** 사용한다는 상식없는 폭탄이다./ 이질, 호렬자, 열병등의 빡테리아, 즉 세균을 밀가루 같은 약에다가 뭉쳐 가지고 비행기에다 실어서 일만메들 이상의 상공(上空)으로 날라가며 슬쩍슬쩍 뿌려놓면 밑창에서는 비행기소리도 못듣고 떨어지는것도 못보고 그냥 병에 걸려버리는 두려운놈이다.(218면)

'적성국가를 골려주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상식 없는 폭탄'이라는 설명에서 세균탄이 전쟁을 안 할 때도 사용하기 때문에 비인간적이고 명분도 없다고 한다. 쥐도 새도 모르게 당하는 것이라 더 무서운 것이라고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는 것이라 더 섬뜩하고 끔찍한 무기일 수 있다. 더군다나 와사탄이나 세균탄을 위해 인간을 실험대상으로 삼는 것이 실제 현실이었기 때문에, 「소신술」의 소신장치나 『매국노』의 세균전이 먼 미래의 공상에 그치지 않는다. 1929년 김동인의 「K박사의 연구」에서 촉발된 1930년대 『과학조선』의 발명과학에 대한 열풍과 기대가 1940년대로 오면 비관적인 전망으로 귀결되는 것은 현실과 간격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명과학이 전쟁의 도구와 살인 무기로 활용되던 1940년대 당시 비관적인 전망에도 열강들은 그치지 않고 경쟁적으로 '최신' 무기

21) 김내성의 『매국노』뿐만 아니라 허버트 조지 웰스의 단편 「도둑 맞은 세균」에서도 세균이 인류의 수명을 연장하거나 병을 치료할 목적보다는 적과의 암투를 벌이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를 내놓기에 바빴다. 부작용이나 비관적인 전망보다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내 편과 적성국가를 가를 뿐이다. 누가 이용하느냐, 내가 어느 편이 되느냐가 발명과학에서 중요한 '선악'의 기준이 된다.

3. 인류 대재앙의 디스토피아와 발명과학(인조인간)에 대한 양가성-〈헨델박사〉(1952)와 『인조인간사건』(1946)

1) 원자탄의 디스토피아와 국가 이기의 충돌-〈헨델박사〉(1952)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신무기가 대량 발명되었으나 신발명에 대한 인간의 공포는 핵무기 사용을 계기로 극에 달했다. 핵무기 사용은 전 인류에게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을 전염시키는 변곡점이 되었다.[22] 1945년 미국의 핵실험과 일본의 원폭 투하는 전 세계를 핵공포로 몰아넣었다. 1949년 소련이 핵실험에 성공하게 되자, 핵독점이 깨진 미국을 중심으로 냉전의 긴장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의 불안이 감돈다. 1952년에 미국은 원자탄보다 더 파괴적인 수폭실험을 남태평양 비키니 환초에서 실행했다. 원폭보다 강한 수폭실험으로 인해 일본을 포함한 세계적 반핵운동이 퍼지게 되었고, 1953년 UN은 핵의 평화적 이용을 선언했다.[23] 〈헨델박사〉는 트루먼 대통령이 핵사용도 불사하겠다고 공표한 한국전쟁기 1952년에 피난지 대구에서 껌을 사면 경품으로 주던 껌딱지만화로 제작되었다. 껌딱지만화라는 제작 형태도 전쟁기에 제작된 특수한 상태라서 이례적인데, 내용적인 면에서도 인류가 멸망하고 인류의 마지막 인간의 시체가 묻힐 묘지로 시작하는 '디스토피아'를 담고 있어서 국내 SF 계보에서는 낯설다.

22) 박상준, 「미래를 바로잡아 보려는 시도」, 『과학과 기술』, 2002.4, 82면 참조.
23) 이영재, 「1950년대 미국과 일본의 괴수영화와 핵」, 『사이間SAI』, 2018.10, 51면.

1950년대는 원자탄의 황금시대라고 일컬어졌으나 그와 반면에 원자탄의 공포가 극에 달했던 시기였다. 특히 미국의 핵실험 이후 실제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탄의 위력을 경험한 미국인들에게 핵은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실제적 공포'로 다가왔다. 수전 손택에 따르면 '재앙의 상상력'으로 공상과학 붐이 일었던 시기이기도 하다.[24] 1951년 〈지구 최후의 날〉, 1953년 〈심해에서 온 괴물〉, 1957년 〈해변에서〉 등은 원자탄으로 인한 공포를 재현해 놓고 있다. 1951년 〈지구 최후의 날〉에서 인류가 원자탄과 같은 과학기술을 무분별하게 발달시키다 보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종말론이 대두되었다. 전 세계가 냉전의 살얼음판 위에서 원자탄 공포에 시달렸을 때, 한국은 전쟁 중이었다. 한국전쟁에도 원자탄을 터뜨려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되었고 이는 중국에 암묵적인 위협으로 작용했다.[25] 원자탄이 터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불안은 한국전쟁을 종식시켰다. 아이러니하게 남한은 원자탄으로 인해 해방을 맞이했고, 전쟁도 멈출 수 있었다. 1953년 〈심해에서 온 괴물〉은 레이 브래드버리의 〈안개 고동〉을 원작으로 한다. 원자탄의 공포로 인한 인류 멸망의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이나, 원자탄의 트라우마로 인한 괴물의 내습에 대한 상상은 1950년대 미국영화를 비롯한 SF의 주요 모티프였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유럽의 SF가 '종말론적 세계관'을 다룬 인류 대재앙, 방사능 피폭 결과물(괴수들)들로 가득찼던 반면[26], 남한에서 핵은 공포라기보다 구원의 아이콘이라는 아이러니를 빚어냈다. 상대적으로 국내 SF에서 원자탄의 공포를 다룬 작품은 찾아보기 힘들다.[27] 원자탄 장면을 삽입한 SF 역시 1950년대 잠깐 등

24) 수전 손택, 「재앙의 상상력」, 『해석에 반대한다』, 이민아 역, 이후, 2013, 316면 참조.

25) 「원자탄 사용불사- 트대통령언명」, 『민주중보』, 1949.4.10.; 「세계평화와 복사를 위해 원자탄 사용불사」, 1949.4.9; 「원자탄 사용불사-트대통령중대발언」, 『한성일보』, 1950.5.12.

26) 이영재, 「1950년대 미국과 일본의 괴수영화와 핵」, 『사이間SAI』 제25호, 2018.10, 48면.

27) '대한민국 신문 아카이브'에서 '핵공포'를 키워드로 검색했을 경우, 단 세 건밖에 기사가 올라와 있지 않다. 반면 '원자력'을 키워드로 검색했을 경우, 1587건이나 기사가 뜬다. 1955년, 1956년을 기점으로 원자력은 한미 원자력 협상, 원자력 평화 이용 등의 기사를 적극적으로

장하다가 1960년대 이후는 공상과학에서 초인이나 영웅 서사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는 〈지구가 불타는 날〉(1961) 등 인류 대재앙의 디스토피아를 다룬 영화가 1960년대까지도 꾸준히 생산된다. 그러나 남한에서 원자탄으로 인한 인류 멸망에 대한 상상을 다룬 암울한 SF는 〈헨델박사〉 이외에는 찾아볼 수 없다. 1959년 한낙원의 『잃어버린 소년』에서 우주 괴물을 멸하기 위해 원자탄을 터뜨리고 그 반사로 뉴욕시를 비롯한 도시가 불바다가 되지만, 한국은 원자탄 사정거리에서 벗어나 있다. 1950년대 인류 대재앙의 디스토피아에서 원자탄 공포는 우리를 비켜 간다.

1952년 최상권의 〈헨델박사〉는 전쟁기에 나온 1950년대 가장 이른 시기의 SF이다.[28] 최상권은 〈인조인간〉이라는 만화도 비슷한 시기에 창작했으나, 현재 실물을 확인할 수가 없다. 〈인조인간〉에서는 철수와 영이가 인조인간을 조종해 사람들을 돕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29], 〈헨델박사〉에서는 지-멘이 만든 인조인간이 원자 독가스를 뿌려 인류를 모두 멸망시킨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헨델 박사와 오젤 박사라는 등장인물의 이름이 미국식인 것으로 보아 미국 펄프 잡지 만화의 번안일 가능성도 있다. 작품의 서두에서도 '미국'의 철학박사가 상상하고 꾸며놓은 이야기라고 밝히고 있다. 1952년 〈헨델박사〉는 인류가 모두 죽고 묘비 앞에 오젤 박사가 혼자 남아 있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시작부터 끝을 예고하는 장면은

신고 있다.

28) 과학소설 분야에서 해방 이후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은 한낙원의 『잃어버린 소년』이었으나, 본 논문에서 다루는 이우영의 『인조인간사건』이 더 이른 시기에 창작된 작품이다. 다만 『국제살인사건』과 한 권에 묶여 있고, 살인사건의 범인이 인조인간으로 밝혀지는 것으로 보아 추리소설 장르에 넣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공상과학 만화 영역에서는 1959년보다 더 이른 시기인 전쟁기에서부터 인류 대재앙을 소재로 한 작품이 있었으며, 이후 인조인간을 다룬 공상과학 만화가 대거 제작된 것을 고려해 보면, 소설보다 만화 영역에서 공상과학이 우세했음을 알 수 있다.

29) 페니웨이의 『한국슈퍼로봇열전』(한스미디어, 2017)에서 최상권의 〈인조인간〉을 잠깐 언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19면)

충격적이다. 레이 브래드버리의 〈지구의 마지막 남은 시체〉처럼 음울한 디스토피아를 보여준다.

> 이 이야기는 **미국의 유명한 철학박사**가 앞으로 한 천년 후의 세상을 상상하고 꾸며놓은 아주 재미있고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 인조인간을 적 기지로 바닷속 신장비에 태워 보내는 장면(왼쪽)과 '마지막 인간이 묻힐 곳'이란 묘비명 앞에 앉아 있는 오젤 박사(오른쪽)

> 위대한 젊은 과학자 오젤 박사는 태평양 넓은 바다 속을 마음대로 헤매이며 살기 좋은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바닷속에서 일 년을 보낸 오젤박사는 바닷속에서는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을 것이라 여기고 육지로 올라온다. 육지로 올라와 보니 지구의 인류가 모두 죽어 있었다. 알고 보니 지-멘이 조직한 인조인간 지구단이 원자 독가스로 인류를 살인한 것이었다. 오젤박사는 생존자를 찾는다는 방송국의 방송을 듣고 찾아갔다가 지구단원에게 납치된다. 납치된 오젤박사는 뗏목을 타고 가다가 물에서 솟아오른 용처럼 생긴 이상한 괴물과 마주한다. 바닷속의 용처럼 거대한 심해 괴물의 상상은 1950년대 원자탄의 부산물로 돌출되었다. 〈헨델박사〉 3권의 마지막에서 살인광선을 쐈던 섬으로 헨델박사가 일생을 바쳐 만든 무기를 타고 간다. 그리고 지-멘과 똑같이 만들었던 인조인간을 잠수정에 태워서 그곳으로 보낸다. 3권의 끝과

1권의 시작은 1950년대 당시 공상과학영화의 인류 멸망과 대재앙의 디스토피아적 전망과 연결되어 있다.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서 핵실험과 수소폭탄 실험이 자행되었고, 태평양전쟁이 끝난 후 연합군은 일본 바다에 무기들을 버렸고, 일제는 전쟁에서 패하자 제주도 바다에 무기들을 버렸다. 〈심해에서 온 괴물〉(1953), 〈고지라〉(1954) 등에 이르기까지 전쟁과 원자탄의 부산물인 괴물은 바다에서 출현한다. 바닷속에 무엇이 묻힌 것인지 모른다는 수수께끼가 언제 어디서 내습할지 모르는 원자탄의 공포를 불러왔고, 그것이 괴물로 현현한 것이다. 특히 미국의 태평양 한가운데서 자행된 원폭과 수폭의 실험은 바닷속의 괴물로 현현하여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의 모티프로 쓰였다. 1959년 한낙원의 『잃어버린 소년』에서도 우주 괴물은 제주 바다 한가운데서 출현한다.[30] 1950년대 괴수영화는 원자탄으로 인류가 멸망하고 방사능으로 인해 괴물로 변한 생명체가 지구를 공격하거나 도시 한가운데에 침투하여 마비시키는 상상으로 재현된다. 〈헨델박사〉에서도 지-멘과 똑같은 인조인간은 '무기'이다. 잠수정에 태워 적에 침투하는 무기를 보낸다는 설정은, 바닷속에 매장된 셀 수도 없는 무기와 병기를 연상시킨다. 적을 섬멸하러 신무기를 앞세우고 갔던 헨델박사와 오젤박사는 지-멘과 인조인간 지구단과 싸워 승리했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1권의 시작은 모두 죽고 오젤박사 혼자 살아남아 자기가 묻힐 묘지 앞에 앉아 있다.

〈헨델박사〉는 곳곳에 원자탄이 터지는 장면과 방사선을 쏘는 장면이 삽입된다. 헨델박사의 연구실을 파괴한 태평양상의 조그만 섬으로부터 비친 광선은 1940년 김내성의 「비밀의 문」에서 전 세계가 발명하려고 하는 '살인광선'임을 알 수 있다. 무시무시한 살인광선은 1940년에는 아직

30) 일제는 2차 세계대전의 본토 결전을 위해 제주도를 병참기지로 활용하다 전쟁에서 패한 후 제주도 바다에 무기를 대거 수장했다.(이성돈, 「일제강점기, 제주인의 삶」, 『헤드라인 제주』, 2019.11.28. 승인; 강미경, 「제주 평화박물관을 아시나요?: 일제의 인권 유린과 침략 전쟁의 현장, 자유와 평화는 공짜가 아니다」, 『(월간) 순국』, 통권 353호, 2020.6, 112-117면)

발명되지 않았지만 전세계가 비밀 설계도를 노리고 있었다는 설정으로 나오는데, 1952년 〈헨델박사〉에서는 원자탄이 터지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된다.

> 그날밤 태평양상에 있는 조거마한 섬에서 **이상한 광선**이 빛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무서운 광선**은 산중턱을(……) 수백마일 밖에 있는 **조거마한 섬에서 빛여 나오는 이상한 광선**은 헨델 박사의 연구실을 파괴하고 또 지하실까지도 그 이상한 광선은 사정 없이 파고 들어 갑니다.

〈헨델박사〉에서는 '태평양상에 비치는 이상한 광선'으로 원자탄이 터지는 장면을 묘사한다. 1952년에 미국의 남태평양에서의 수폭실험은 파괴력이 원자탄보다 어마어마해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핵실험이나 수폭실험은 주로 어마어마한 빛이 쏘아지는 것으로 상징된다.[31] 그래서 마치 천지창조 신화처럼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단 한 번의 빛으로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종말의 상상력이 전 세계를 전염시켰다. 공상과학에서 적이 쏘아대는 이상한 빛이나 광선은 원자탄의 상징이다.[32] 빛과 파괴라는 모순적이고 충돌하는 이미지는 대중문화를 통해 사람들에게 원자탄의 공포와 구원이라는 이중적인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1952년 남태평양에서의 미국의 수폭실험은 〈헨델박사〉(1952)의 물밑으로 가는 탱크, 납치한 뒤 뗏목으로 갈아타는 설정, 물밑의 연구실 등 바다를 배경으로 그 밑에서 무엇이 솟아오를지도 모른다는 공포와 그에 대응하는 방어무기를 발명해내도록 한다. 잠수정, 물밑으로 가는 신무기 탱크 등 '잠수함'이 냉전 체제에서 적의 기밀을 파악하는 무기가 된다. 바다는 무수

31) 피종호, 「1950년대 독일의 전쟁영화에 나타난 냉전의 수사학와 핵전쟁의 공포」, 『현대영화연구』 36호, 2019.8, 85면.

32) 〈헨델박사〉에서도 이상한 광선이 빛나는 것으로 묘사되고, 〈대괴수 용가리〉에서도 핵실험으로 용가리가 나오기 전에 이상한 빛이 인왕산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보여준다.

한 생물이 사는 미지의 장소가 아니라 어떤 무기나 적이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공포의 장소이다. 바다가 핵실험과 수폭실험의 괴물이 내습하는 장소로 묘사되다가 1957년 소련의 스푸트니크 충격 이후 미·소의 싸움이 우주로 바뀌고 괴물이 내습하는 장소는 산 위가 된다. 1959년 한낙원의 『잃어버린 소년』까지 우주 괴물은 제주 바다에서 솟아올랐다가 거기로 사라진다. 그러나 1967년 〈대괴수 용가리〉는 용가리는 인왕산에서 출현하여 도시 한가운데를 급습한다.

2) 인조인간 발명에 대한 경계와 매혹-〈헨델박사〉(1952)와 『인조인간사건』(1946)

바다에서 일 년을 살다 육지로 올라간 오젤박사는 육지에서 인간들이 모두 죽어 있는 것을 목격한다. 유명한 발명가 지-멘이 '인조인간' 지구단을 조직하여 원자 독가스로 인류를 모두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다. 이에 헨델박사는 지-멘과 똑같은 인조인간을 만들어서 오젤박사의 정신을 불어 넣는다. 인조인간을 병기로 활용하는 모티프는 국내에서 1960~1970년대 공상과학 만화에서 거대로봇을 내세워 적을 무찌르는 상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거대로봇 시대 인조인간이 우리 편 무기로 활용되기 전, 국내에서 '인조인간'은 범죄(살인)와 연루되거나 상대편의 적으로 등장해서 두려웠으며, 그로 인해 인조인간 발명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과 경계심을 불러왔다.

발명가 지-멘이 조직한 지구단원들은 모두 인조인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에서 인조인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1946년 이우영의 『인조인간사건』에서부터 드러난다. 1946년은 해방된 지 겨우 1년이 지난 때이다. 1940년에서 1945년에 이르는 동안 새로운 발명은 곧 무기와 재앙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 이우영의 『인조인간사건』은 인조인간, 로봇이라는 새로운 발명 역시 축복이 될지 재앙이 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두려움과 '경계'를 보여준다. 인조인간이 우리 편일지 상대편일지에 따라

‘선’과 ‘악’이 결정되고, ‘정의의 사자’로 거듭날지 ‘괴물’로 현현할지 좌우된다. 새로운 발명은 모두 적과 싸우기 위한 ‘무기’에 다름 아닌 것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국내 공상과학 영화에서 로봇은 대부분 적과 싸우기 위한 전투용이다.[33] 이우영은 살인사건의 범인을 인조인간으로 설정함으로써, 1946년 인조인간에 대한 거부감과 경계를 보여준다. 그러나 인조인간을 조종한 인간을 지목함으로써 누가 이용하느냐에 따라 인조인간이 범인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통해, 인조인간이 낯설지만 발명해서 활용하고 싶은 강렬한 유혹도 불러일으킴을 알 수 있다. 1946년 이우영의 『인조인간사건』에서 살인 범죄자로 등장했던 인조인간은 〈철인 캉타우〉, 〈로버트 태권브이〉, 〈Z보이〉 등에 이르기까지 1960년대와 1970년대 공상과학 만화에서 정의의 영웅으로 탈바꿈한다. 그러나 인조인간에 대한 공상이 밝은 기운으로 전환되었음에도 1960년대와 1970년대 공상과학에서 인조인간은 생활의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 적과 싸우기 위한 강력한 ‘무기’로 기능한다.

1952년 〈헨델박사〉는 인조인간의 출현에 대한 대중의 모순된 이중적 감성을 보여준다. 인조인간이 무시무시한 살인 범죄자였지만, 사실 그 뒤에 그것을 이용한 인간이 있었다는 설정은 ‘누가’ 이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선언이다. 마치 핵의 평화적 이용을 선언한 UN처럼 전 세계를 위험에 빠트릴 괴력을 지니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지닌 강력한 힘의 매혹을 떨쳐버리기 쉽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발명과학은 늘 미래를 장밋빛으로 물들이는 희망과 기대와 함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내비치는 산물로 기능했다. 그런데도 새로운 발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와 경계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그 잠재된 목소리가 인간의 이기적 욕망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인조인간은 이용자에 따라 ‘선’이 될 수도 ‘악’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똑같은 상황

33) 1960년대와 1970년대 로봇 조종사는 어린이들이 꿈꿨던 우주 조종사나 과학자라기보다 전쟁에 나가는 ‘전사’에 다름 아니었다.

에서 '우리 편'에서 이용하게 되면 '선'이 된다. 정의를 앞세우는 평화적 이용은 국가적 이익이나 실리를 앞세우기 위한 '합리적인' 명분이 되었다.

수사과장이 선두로 일행은 범행현장으로 들어갔다. 창식이도 그들의 뒤를 딸어서 들어갔다. 이층으로 올러갔다. 그곳이 윤박사의 실험실이었다. 그곳은 三十평이나되는 넓은 방이었다. 여러 가지 기게들이 벽에달려있었다. 또 옆에는 철공장과같이 조고만 여러 가지 기게도구가 놓여있었다. 그와반대편에 동편창앞에는 큰침대가있고 침대위에 윤박사의 사체가 있었다. 그들은 박사의 사체를싸고 모혀들었다. 사실인즉 무참한 죽엄이였다. 안면은 납작하게 찍으려저서 인상도 모를만큼 되었다. 엉크러진 고기덩이속에 피뭉치 아래로 한줌의 힌수염이 없었드라면 이것이 윤박사의 시체인것도 분별할길이 없을번하였다. 창식은 잠간박사의 시체를 드려다보고는 그들이 고개를맛대고 회의하는곳을 떠나서 방안을 돌나보았다. 그때마침 그의눈에 띤 것은 벽에붙이었든 크고넓게 맨든궤짝속에 강철로 맨든 인조인간이 서있는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사람의키보다 조금컷는데 중세기의 무사가 갑옷을 두겹이나 껴입은듯한 훌륭한 **인조인간**이였다. 큰코가 쑥나왓고 입속에는 고성기가 들어있는 것이 보히였으나 눈에는 동그런 전광기가 들어있는것이 보혔다. 또두귀에는 옛날 구식라듸오 나팔과같은 것이 달려있는데 그것은 검은헌겁으로 내리덮어있었다. 인조인간앞으로 가까히 갔을때 어데서인지 찌리리 찌리리하는 적은소래가 들리었다.(이우영, 『人造人間事件』, 창문사, 1953, 57면)

그러나 창식은 어제밤드른 라디오드라마를 그대로 또박 또박 읽어내려갔다. 전쟁이이러나는 장면이였는데 적국의 공군이 경성시가를 습격하는 장면에 이르러서는 여러사람은 정신이없었다. 그디어 거위끝나는곳에 인천바다에서 두나라함대가 결사전을하는 장면에이르렀다./ "인천해상의 결사전은 절박했다."/ 창식은 소리를 높여서 읽었다./ "서풍이 한번 강하게 불러왔다." "해상은 점차로 파도가 높아진다." "아!"/ 일동이 돌연 놀라지 않을수없었든것이다./ "큰일났다! 인조인간이 움지긴다." "이곳으로 거러나온다."/ 철석 철석하고 쇠소리를 내면서 인조인간은 궤속에서 한거름

을 내여드디였다. 혼이드러간 듯하다./ 창식은 창백하여진 얼굴로 일이를 계속했다./ “포성은 차츰 차츰 격렬하여간다.”/ 포성이라고한즉 인조인간은 뒷둥 뒷둥거러서 세거름앞으로 나와 방중앙에서왔다. 여러사람은 두려워서 벽에 기대서있었다./ “흑연이 바다위에 가득하다.”/ 흑연이라고한즉 인조인간은 왼편으로 돌아섰다./ “폭탄과 독와사가 터진다.”/ 폭탄이라고한즉 인조인간은 박사의침대앞으로 거러갔다. 그것을본 일동의 얼굴은 공포로써 가득차있었다./ “두려운 폭음을 내인다.” “아!”/ 일동은 비명을 내질렀다. 폭음이란 신호에 인조인간은 강철로만든 주먹을 드러서 내려쳤다. 과장의 모자는 찍으러졌다.(73-75면)

〈헨델박사〉보다 이른 시기에 발표된 1946년 이우영의 『인조인간사건』이다. 윤박사의 실험실과 인조인간이 비교적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여러 가지 발명 기계들이 즐비한 철공장과 같은 곳에 중세기의 무사가 갑옷을 두 겹이나 껴입은 듯한 인조인간에 대한 묘사는 익숙하지 않아 낯설지만 아주 오래전 마주한 듯한 기괴함을 불러온다. 인간과 닮았으나 인간이 아닌 인조인간에 대한 대중의 이중적 감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우영의 『인조인간』에는 ‘전쟁’을 테마로 한 라디오드라마 ‘공습장송곡’이 삽입되어 있다. 마치 실제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포성, 흑연, 폭탄, 폭음 등 전쟁 용어를 삽입하고 라디오 방송극인 만큼 독자에게 극으로 치닫는 절정과 음향효과를 상상하게 한다. 인조인간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설정했는데, 라디오 방송극에 나오는 전쟁 용어에 따라 인조인간이 실제로 움직인다는 가정은 당시 대중에게 전쟁 소재의 라디오드라마가 얼마나 현실처럼 생생하게 받아들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34] 1938년 허버트 조지 웰

34) 일제는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 당시 실제 전쟁을 라디오 방송으로 전파하여 선동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한국전쟁기에도 실제 전쟁 발발과 전투 상황을 유엔총사령부가 라디오 방송으로 전하기도 했다. 라디오 방송으로 실제 전쟁을 들었던 1940년대와 한국 전쟁기에는 『인조인간』에 삽입된 라디오 방송극을 실제 전쟁으로 듣고 공포에 떠는 것이, 낯설거나 이상한 광경이 아니라 익숙하고 생생한 현실이었다.(송석원 · 엄현섭 · 홍선영 · 정준영 · 강태웅, 「

스의 『우주전쟁』이 미국에서 오손 웰스의 라디오드라마로 방송되었는데, B14 폭격기 조종사의 보고에 따라 트렌턴 주민들은 실제 전쟁이 일어난 줄 알고 도망가려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한다. 전쟁을 겪은 세대에게 오손 웰스의 〈우주전쟁〉 라디오 방송은 공상과학이 아닌 실제 현실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우영의 『인조인간사건』에 삽입된 전쟁 공습도 당시 사람들에게 공상과학보다는 생생한 현실로 인식되었다. 공상과학이 종종 전쟁영화를 방불케 하는 것은 아무리 미래나 가정을 공상하려고 해도 현실에서 겪은 전쟁이 더 생생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혹은 〈헨델박사〉에서처럼 인류를 멸망시키는 악당으로 등장하는 인조인간은 어떻게 1960년대와 1970년대 정의의 영웅으로 전환될 수 있었을까. 인조인간에 대한 경계와 유혹의 이중적인 감성에서 헨델박사가 적에 대적할 '무기'로 활용한 것처럼 강력한 힘을 이용하고 싶은 욕망이 앞서게 된다. 인조인간이라는 거부감에 헨델박사는 지-멘의 지구단과 같은 악당과는 다르다는 의미로 오젤박사의 '영혼'을 불어넣고, 이우영의 『인조인간사건』에서도 인조인간을 조종한 배후를 찾아내려고 한다. "인조인간이라는 이 강철로 맨든 이물건이 사람의 **혼**이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인조인간이 영혼이 없는이상** 이러한일은 사람의 행동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고 한다. 결국 인조인간이 어떤 명령어에 따라 움직이고, 그 명령어가 라디오드라마 공습장송곡 속에 삽입되어 있었음이 드러나며, 윤박사의 조수였던 태윤이 살인의 배후로 드러난다. 그리고 이후 '영혼'을 집어넣은 인조인간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싸우는 정의의 영웅이 된다.

1952년 〈헨델박사〉에서는 인조인간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적군에 잠입

전파(電波)와 전파(傳播)Ⅱ- 태평양전쟁의 라디오방송과 방송극을 중심으로」, 『일본학연구』 제31집, 2010.9, 83-103면; 엄현섭, 「전시기 라디오 방송콘텐츠와 방송극 연구」, 『일본사상』 제18집, 2010.6, 199-218면; 장영민, 「6·25 전쟁기 '유엔총사령부의 소리(VUNC)' 라디오 방송에 관한 고찰」, 『한국근현대사연구』 제47집, 2008, 280-325면 참조)

하는 스파이로 심기 위해 오젤박사의 영혼을 불어넣는다. 1952년 데츠카는 인조인간 아톰에게 '영혼'을 불어넣는다. 인조인간이 영혼을 가지게 되면 인간을 해하거나 악한 마음을 품지 않고 정의로운 행동을 할 것이라는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인조인간의 '영혼'이란 우리 편에 충실한 충성심이나 애국심과 흡사한 말이다. 아직 현실로 와 닿지 않는 신발명에 대한 이중성에서 감정의 저울이 매혹 쪽으로 기울게 되면, 어떻게든 내 쪽으로 끌어당겨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욕망이 인다. 감정의 저울이 매혹 쪽으로 기우는 데는 현실과의 거리가 필수적이다. 공상과학이 낙관적 기대와 전망을 품기 위해서는 현실과 거리가 멀어져야 한다. 그래야 암울하고 피폐한 현실에서 미래를 향한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이다. 1940년대와 전쟁기에는 공상과학이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무리 미래를 공상해도 현실이 너무 생생해서 현실과 거리를 두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전쟁기가 지나고 1950년대 후반에 가서야 공상과학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어린이가 꿈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 인조인간이 정의의 영웅이 되고, 우주로 나가 우주 괴물을 섬멸하며 과학자와 우주비행사를 꿈꾸는 시대가 된 것은 공상과학이 현실과 괴리된다고 터무니없다고 비판받던 바로 그 현실과의 거리 때문이다. 현실과 일치할 때 공상과학은 밝은 미래를 기대할 수가 없다. 아무리 상상해봐도 미래 역시 암울할 뿐일 때 세상은 온통 디스토피아가 점령하게 될 수밖에 없다. 1960년대와 1970년대 공상과학이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품을 수 있었던 것은, 막연하고 추상적으로 다가오는 '우주과학'이 우리의 현실에 와닿지 않고 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상과학의 본질은 바로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러워 보이는 '공상'에 있다. 발명도 마찬가지이다. 로봇, 인조인간, 우주 로켓의 발명은 꿈이 될 수 있지만, 전투기, 폭격기, 항공모함의 발명은 전쟁에 실제로 쓰이는 무기이기 때문에 꿈이 아닌 '현실'이다.

〈헨델박사〉의 인조인간은 인류를 모두 멸망시킨 악의 무리 지구단이기

도 하면서, 헨델박사가 오젤박사의 영혼을 불어넣어서 만든 정의의 무기이기도 하다. 헨델박사는 지하 연구실을 차지한 지구단에게 무기 설계도가 아닌 방사선 단추를 누르는 법을 건네준다. 지-멘이 인조인간으로 지구단을 만들어 인류를 멸망시켰다는 설정은, 인조인간, 로봇에 대한 오래된 두려움이 전제되어 있다. 인조인간을 무기로 하면 인간보다 몇 배나 강할 것이라는 생각에 유혹적이지만, 만약 나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인류 전체에 끼칠 영향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헨델박사는 지-멘과 똑같이 생긴 인조인간에 오젤박사의 영혼을 집어넣는다. 그럼으로써 누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인조인간은 우리를 위해 적을 무찌르는 '평화적인' 무기가 될 가능성도 보여준다. 인조인간에 대한 이중적인 시선은 핵(원자탄)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유엔의 승인하에 미국은 합법적으로 핵을 보유하고 공산주의를 견제하는 강력한 권력으로 활용한다. 2차 세계대전은 발명과학이 이중적인 대립과 견제의 권력으로 기능하게 된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힘과 권력을 가지는 것은 발명가가 아니라 국가, 지구, 남성, 민주주의 등의 대립구도에서 핵을 보유한 쪽이다. 발명가 개인은 사악할 수 있지만, 핵을 사용하는 (우리) 국가(혹은 우주인에 대항하는 지구)는 사악하지 않다는 모순된 함정에 빠진다.[35] 1952년 데츠카 오사무가 아톰이라는 인조인간을 만들면서 영혼(마음)을 불어넣는 작업을 한 것도 사실은 일본에 해가 되지 않는 일본을 위해 싸우는 작은 영웅을 만들고 싶어서였을 것이다. 이때의 영혼은 상대편에게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우리 편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정의 수호를 앞세운 '애국심'에 다름 아니다. 세계가 냉전으로 갈리어 있던 상황에서 인조인간에 강요된 영혼은 결국 더욱더 살얼음판의 분

35) 이런 이분법적 대립은 1959년 김산호의 〈라이파이〉로 가면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 〈헨델박사〉에서 인조인간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했던 반면, 〈라이파이〉에서는 지구연합연맹이 적을 무찌르기 위해, 혹은 사악한 녹의 여왕 부대를 무찌르기 위해 원자탄을 터뜨리는 장면이 나온다. 원자탄은 상대적으로부터 우리를 수호해주고 지켜주는 평화를 보장하는 무기이다.

위기로 원자탄이 터져서 지구가 멸망할지도 모른다는 허버트 조지 웰스가 예언한 디스토피아적 전망으로 치닫게 한다.

1953년 국내에 에릭 블레어의 『1984』가 『미래의 종』이란 제목으로 라만식에 의해 처음 번역된다.[36] 전체주의 사회가 도래하게 될 위험성을 경고하는 미래를 담고 있는 에릭 블레어의 예언은, 1984년이 훨씬 지난 2022년인 오늘날 실현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섬뜩한 디스토피아를 담아내고 있다. 1965년 문윤성의 『완전사회』에서도 사회주의 국가의 충돌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가정한 것을 보면, 1950년대 원자탄으로 촉발된 냉전 체제는 1960년대 우주개발 경쟁으로 이어져서 극에 달했다고 볼 수 있다. 에릭 블레어의 『미래의 종』은 허버트 조지 웰스가 80만년 후의 미래인종을 예견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암울한 디스토피아적 전망을 보여준다. 제2차 세계대전과 원자탄이 터지는 것을 지켜본 에릭 블레어는 1946년 죽음을 작정하고 세상 끝 오지로 들어가 1948년 소설을 탈고한다.[37] 유럽은 두 갈래의 적대 진영으로 나뉘어 있었고 원자탄이 터지기라도 하면 전 인류의 종말이 닥칠 것이라는 묵시론적 예언이 먼 미래의 상상이 아니라 생생한 현실로 와닿는 시기였다.[38]

〈헨델박사〉에서 헨델박사가 발명했던 오젤박사의 영혼을 불어넣은 인조인간 무기는 1960년대와 1970년대 SF에서 거대로봇의 시대가 열리도록 했다. 인조인간, 로봇은 정의와 평화를 지킨다는 명분과 함께 강력한 무기의 아이콘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로보트 태권브이는 아직까지 그 시절을 함께 보낸 세대들에게 무적의 아이콘, 승리의 아이콘으로 각인되고 있다. 〈헨델박사〉에서 인류의 대재앙이라는 공포는 헨델박사가 창안한 인

36) 최애순, 「대체역사의 국내 수용 양상- 복거일의 『비명을 찾아서』가 탄생하기까지」, 『우리문학연구』 제61집, 2019.1, 406-407면 참조.

37) 존 루이스 개디스, 『냉전의 역사- 거래, 스파이, 그리고 진실』, 정철 · 강규형 역, 에코리브르, 2010, 15면 참조.

38) 존 루이스 개디스, 『냉전의 역사- 거래, 스파이, 그리고 진실』, 정철 · 강규형 역, 에코리브르, 2010, 15-16면 참조.

조인간과 여러 발명 무기로 극복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전쟁이 일상이었던 1952년과 1953년만 해도 더 나은 미래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1950년대 후반을 거쳐 1960년대로 가게 되면 원자탄의 디스토피아적 세계관은 국내 공상과학에서 거의 자취를 감춘다. 대신 돌려차기로 악당을 물리치고 납치된 이들을 구출하는 정의의 사자 〈라이파이〉가 온다. 암울과 패배, 종말의 장막을 걷어내고 희망과 낙관을 담은 유토피아의 미래가 주류가 된 공상과학 시대가 열리게 된다.[39]

〈헨델박사〉는 여러 면에서 국내 SF의 계보보다는 미국 SF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구 최후의 날〉로 야기되는 종말론에 대한 디스토피아적 상상, 〈심해에서 온 괴물〉에서 바다에서 내습하는 괴물의 출현, 바다 밑 탱크 등과 같은 모티프들이 〈헨델박사〉에 차용되고 있다. 그러나 번역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더라도, 국내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은 핵공포와 인류의 대재앙이라는 디스토피아적 상상력이 1950년대 말과 1960년대로 가게 되면서 어떻게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유토피아로 전환되는지를 고찰해보기 위해서는 1952년 〈헨델박사〉와 1959년 한낙원의 『잃어버린 소년』이나 김산호의 〈라이파이〉 같은 작품 간의 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발명과학이 낙관적인 전망으로 전환하기 이전의 디스토피아적 세계를 보여주던 국내 공상과학의 계보를 따라가 보았다. 그럼으로써 전쟁이나 원자탄의 재앙이 현실 그 자체가 되어버려서 현실과의 거리를 벌리지 못했을 때 비관적인 전망으로 나타남을 살펴보았다.

39) 본격문학에서 여전히 원자탄의 공포에 대해 묘사하고 있고 전쟁의 트라우마로 인한 우울과 상실을 그리는 데 치중하고 있었지만, 공상과학에서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는 국가 이데올로기와 함께 원자탄의 공포를 극복하고 원자력 에너지로 미래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려는 기대를 담아내고 있었다. 공상과학은 1960년대와 1970년대, 1980년대까지도 국가의 과학진흥정책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과학교육 독려와 기획에 부응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국가의 발전 진보의 미래관과 함께 대중 역시 정의의 영웅을 원했던 결과 본격문학과는 다른 대중 독자층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최애순, 「1950년대 원자탄 공포를 낙관적 전망으로 치환하기까지- 1959년 김산호의 〈라이파이〉와 한낙원의 『잃어버린 소년』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제92집, 2022.3. 참조)

4. 결론: 현실과 공상의 거리-낙관적 전망으로 나아가기

SF의 창시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허버트 조지 웰스는 세기말에서 원자력이 등장한 시기까지 거의 1세기를 살았던 인물이다. 허버트 조지 웰스는 『타임머신』, 『투명인간』을 발간한 1894년경에 과학발명의 부작용과 실제로 실현되었을 때의 섬뜩한 공포에 대해 예견하고 있다. 2022년 현재 웰스가 예언한 타임머신이나 투명인간은 아직 발명되지 않았지만 이제 아무도 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다. 웰스의 공상과학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것임에도 우리가 섬뜩한 공포를 느꼈던 것은 실현되었을 때를 상상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막연하게 '바이러스가 인류를 덮친다면'이라고 상상했던 실제를 마주하고 있다. 인공지능, 자율기계, 가상현실 등의 발달로 미래는 분명 빠르게 과학기술과 문명이 진보할 것임에도 우리는 지금 낙관적인 미래를 전망하거나 보장할 수 없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이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장담할 수 없다. '현실'과 '공상' 사이의 거리가 벌어졌을 때, 미래를 마음껏 공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 때 우리는 낙관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인류는 비관에서 벗어나고 우울에서 탈피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어떻게든 절망적인 현실을 견뎌내고 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노력과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그것 때문이다.

1940년대와 한국 전쟁기를 거치며 원자탄이 터지고 발명과학이 전쟁의 살인 무기로 이용되는 것을 경험했다. 과학기술의 발달이 비관적인 전망을 내포한다는 것을 목격한 인류에게, 새로운 과학기술은 섬뜩한 '경계'를 불러왔다. 그러나 유혹 또한 만만치 않아서 원자탄이 터지고 인류의 대재앙 공포가 만연한 1950년대 남한은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적극적인 원자로의 도입과 과학교육 정책을 펼치게 된다. 디스토피아적 전망이 만연한 상황에서 발명과학이 드러내는 이중성과 인간의 욕망이 맞물릴 수

밖에 없다. 발명과학의 디스토피아적 전망을 낙관적인 전망으로 치환하기 위해서는 현실과 공상의 거리가 다시 벌어져야 한다. 이때 소환되는 것이 '공상과학'의 영역이다. 현실과 공상의 거리를 벌리기 위해 공상과학은 현실의 공간에서 벗어나 드넓은 '우주'로 나아가게 된다.

| 참고문헌 |

김성연, 「방첩소설, 조선의 총동원체제와 '국민오락'의 조건- 김내성의 『매국노』를 중심으로」, 『인문과학논총』 37, 2014.2, 217-239면.

박범기, 「재난서사와 개인의 불안」, 『문화과학』 79, 2014.9, 170-191면.

박상준, 「미래를 바로잡아 보려는 시도-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과학과 기술』, 2002.4, 82-83면.

우정덕, 「총동원체제 하의 대중소설과 그 의미- 안전민의 「太平洋의 독수리」, 「싸움하는 副丹粧」을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회자료집』, 2013.2, 72-79면.

이다운, 「일상의 파국과 상상된 재난」, 『어문론집』 85, 2021.3, 329-358면.

이윤종, 「할리우드 지구 종말 SF 영화」, 『인문과학』 제57집, 2015.5, 67-99면.

정혜영, 「방첩소설 「매국노」와 식민지 탐정문학의 운명」, 『한국현대문학연구』 24, 2008.4, 275-302면.

조용욱, 「1920년대와 1930년대 영국의 군사전략과 군비개발정책」, 『한국학논총』 35, 2011.2, 191-222면.

차현지, 「태평양전쟁 한국광복군과 미(美)전략첩보국(OSS) 합작의 국제적 배경」, 『사회과교육』 59(1), 2020.3, 39-59면.

최애순, 「1920년대 미래과학소설의 사회구조의 전환과 미래에 대한 기대-『팔십만년후의 사회』, 『이상의 신사회』, 『이상촌』을 중심으로」, 『한국근대문학연구』 41, 2020.상반기, 7-51면.

최애순, 「1930년대 『과학조선』과 식민지 조선의 발명·발견에 대한 기대」, 『한국근대문학연구』 통권 43호, 2021.4, 303-352면.

피종호, 「1950년대 독일의 전쟁영화에 나타난 냉전의 수사학와 핵전쟁의 공포」, 『현대영화연구』 36호, 2019.8, 81-107면.

로저 포드, 『2차대전 독일의 비밀무기』, 김홍래 역, 플래닛미디어, 2015.

에릭 홉스봄, 『극단의 시대: 20세기 역사 (상)』, 이용우 역, 까치글방, 1997.

존 루이스 개디스, 『냉전의 역사- 거래, 스파이, 그리고 진실』, 정철·강규형 역, 에코리브르, 2010.

<Abstract>

The dystopia of invention science from the 1940s 『New Era』 to the 1950s <Dr. Handel>

Choi, Ae-soon

In this paper, I try to look into the horror of invention science when it becomes a reality by focusing on the period when the genealogy of invention science in Korea was filled with pessimistic prospects. Assuming that everything human beings invented or fancied becomes "real," we cannot invent, fantasize, or dream arbitrarily. This is because we have to consider the results or effects when it becomes a reality. So, if the fantasies of inventions are narrowed from reality, it becomes impossible or difficult for us to fantasize about the future. This is because no matter how much you try to fantasize about the future, the pressure of reality is strong. The energy of war surrounding the Pacific Ocean in the 1940s, the energy of nuclear explosions after 1945, and the energy of the Korean War after 1950 overwhelms all reality. No matter how much you try to fantasize about the future, the reality is so bleak and hopeless, it's like riding Wells's time machine and continuing to face the 'eerie desolate' while continuing to travel into the future.

In this thesis, the actual fear and invention of the reality that has made it impossible to imagine the future through the future war novel (fictional novel) 「Eagle of the Pacific」 and the science novel 「Soshinsul」 published in the 『New Era』 published during the Pacific War in the 1940s. I want to look into the dystopian outlook that science has created.

In the 1940s, until the atomic bomb was dropped on Hiroshima, rather than fear of a catastrophe for mankind, I wanted to divide my side and win by dividing my side. However, the nuclear tests and nuclear explosions spread the aura of the “end of the earth” throughout the world, and the Korean Peninsula, where the Korean War was fought in 1950, could not escape from this. <Dr. Handel>, published as a chewing gum cartoon during the war in 1952, begins with ‘the last human left on the earth’.

However, in 1959 Han Nak-won's『The Lost Boy』or Kim San-ho's science-fiction cartoon <Li-Fi>, the dystopian outlook turned into an optimistic one. In this paper, we try to follow the period when the fear of reality was eroded by the fear of reality, revealing a dystopian outlook before changing to an optimistic one and not having time to imagine the future. With the exception of「Eagle of the Pacific」,「Soshinsul」and <Dr. Handel> have not been studied, so it is thought that it will be helpful in securing bibliography of Korean science fiction. It reveals that Lee Woo-young's『Artificial Man』was analyzed together in order to discuss the double public sensibility of the android in <Dr. Handel>.

Key words: 1940s, 1950s,『New Era』,「Eagle of the Pacific」,「Soshinsul」, <Dr. Handel>, Atomic Bomb, Invention Science, Android, Dystopia, War, Weapon, Fantasy, Reality, Pessimistic, Prospect, apocalypse, horror

투 고 일 : 2022년 2월 12일　　심 사 일 : 2022년 3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2년 3월 10일　　수정마감일 : 2022년 3월 20일